앵무새가 떨어트린 물방울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⑥ 지성(至誠)의 힘 : '앵무새의 날갯짓'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친구인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앉은뱅이 지성이를 봉사인 감천이가 업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느 날 옹달샘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처님께 바쳤더니 지성이는 일어나 걸었고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와는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전하지만,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린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이런 설화가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 하나쯤 실천한다고 상황이 바뀌겠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는 등의 실천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몇 해 전 이런 내 생각을 부끄럽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면 현금으로 적립되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실천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골에 사는 나는 도시로 나갈 때면 종종 버스를 이용했으며, 가까운 거리면 걸어 다녔다. 이산화탄소 감축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불교 동화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다. 다행인지 부처님이 전생에 앵무새였을 때의 이야기가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전하고 있었다. 이 동화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날 히말라야 숲속에 환희수(歡喜首)라는 앵무새가 다른 동물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하게 됐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번졌으며, 숲속의 동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작은 앵무새 역시 위험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날개가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앵무새는 가까운 호수로 날아갔다. 그리고 온몸을 물에 푹 적시고 불길이 타오르는 숲으로 돌아가 날개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물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앵무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숲과 호수를 수백 번 오가면서 이 행동을 반복했다. 숲에서 나오는 연기에 눈은 따가웠으며, 깃털 또한 불길에 그을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앵무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이 숲에서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나무와 벗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찌 두고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앵무새는 숲과 호수를 끊임없이 오고 갔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석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앵무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앵무새야, 네 작은 날개에 묻은 몇 방울의 물로 이 거대한 산불을 끌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라."

이 말을 들은 앵무새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몇 방울의 물로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숲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벗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앵무새였을 때 이야기
산불 끄려 온몸 적셔 물방울 털기 반복
정성에 감동한 제석천, 비 내려 산불 잡아
민둥산→축령산 일군 임종국 선생 떠올라
지성 어린 작은 실천도 세상 변화 힘 돼

앵무새의 말에 감동한 제석천은 신통력을 발휘해 많은 비가 내리도록 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은 모두 꺼졌고 숲은 다시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됐다.

지성(至誠), 세상을 바꾸는 힘

앵무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고사가 떠올랐다. 그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고 염증을 느껴 산에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냇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노파를 만나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파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 한다고 답했다. 이백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노파는 이백을 꾸짖으면서 말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도끼는 바늘이 될 수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는 말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初心不忘 磨斧作針)"는 명언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백은 산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고 후에 시선(詩仙)이라 불릴 만큼 큰 인물이 됐다. 동화 속 앵무새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불을 껐다는 이야기와 묘하게 닮은 것 같아 소개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앵무새 이야기와 유사한 사례가 전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전남 장성에 있는 축령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편백 숲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지금처럼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인물이 있는데, 바로 춘원(春園) 임종국(1915~1987) 선생이다. 그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진 '붉은 민둥산'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축령산에 편백과 삼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나무를 심느냐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나무 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때는 혹독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수많은 묘목이 타들어 가기도 했다. 그는 가족과 인부를 동원해서 매일 산 아래에서 물을 날라 나무에 뿌려주었다. 그 결과 이곳의 나무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그가 황무지에 심은 나무만 해도 279만 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나무를 가꾸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정부가 직접 나서 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산림욕의 성지' 축령산은 앵무새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떠한 작은 변화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앵무새가 산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나, 임종국 선생이 산에 편백을 심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앵무새나 임종국 선생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숲이 타들어 가고 산이 벌거숭이 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맹자는 '불인지심(不忍之心)'이라 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이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를 차마 보지 못하고 직접 자원봉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성금을 보내는 바로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천성(天性)이라 부르든, 아니면 신성(神性), 불성(佛性)이라 하든 그 무슨 상관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앵무새나 임종국 선생은 그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작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그러한 지성(至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 앵무새의 날갯짓에 제석천이 감동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수많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작은 실천이라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다.

"물방울이 비록 작을지라도 떨어지고 쌓이면 마침내 큰 그릇을 채우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善)이라도 쌓아 올려 마침내 큰 복을 이루느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고,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을 이룰 수 있다. 한 번 반짝했다가 마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성이라는 엔진을 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앵무새의 날갯짓 아닐까?

언제부턴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면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앵무새가 심어준 지성의 날갯짓, 희망의 날갯짓이 펄럭이고 있었다. 자연이라는 하늘이 감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